2012 뜨겁게 달군 10대 트렌드

문화가 되고 삶이 되어 대한민국을 관통하다

①힐링 ②안철수
③강남스타일 ④자전거
⑤선거 ⑥오디션
⑦블랙박스 ⑧복고
⑨애니팡 ⑩불금황토

2012년 우리 사회 전반에는 다양한 트렌드들이 새롭게 등장해 크게 유행했다. 일부는 신드롬이라고 할 정도로 국민의 삶 깊숙이 파고들어 급속한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했다. 광주일보는 올 한해 국민을 사로잡은 10대 트렌드를 선정해 정리했다.

①**힐링**=올해 '힐링(Healing)' 열풍이 한국사회를 변화시켰다. 힐링은 서적, TV프로그램, 영화 그리고 각종 캠페인 등으로 우리 사회에 퍼지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. 바쁜 현대사회에 찌들어갔던 사람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'따뜻한 메시지'에 감동을 받았다.

②**안철수 현상**=기존 정치인과 정당에 염증을 느낀 국민은 혜성처럼 등장한 안철수 전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.

③**강남 스타일**=가수 싸이(PSY)의 '강남스타일'이 전 세계에 '말춤 열풍'을 일으켰다. 싸이도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올라섰다. 강남스타일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주 연속 2위를 차지했고,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10억건을 돌파하면서 저스틴 비버의 '베이비'를 제치고 '역대 가장 많이 본 동영상'으로 기록됐다.

④**자전거**=4대강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조성되고, 지자체들도 앞다퉈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급증했다. 시민들은 '웰빙'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했고,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전거가 하나의 유행으로 자리 잡았다.

⑤**선거**=4·11 총선과 18대 대선이 겹치면서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.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'변화'와 '기대'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. 특히 정치인들의 공약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갔다. 관심은 75.8%(대선)라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났다.

⑥**오디션프로그램**='슈퍼스타K', 'K팝스타', '위대한 탄생', '보이스 코리아' 등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. 참가자들은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'실력'을 인정받아 '스타'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몰려들었다.

⑦**블랙박스**=갑작스런 접촉 사고나 빈차털이, 뺑소니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운전자들이 크게 늘었다. 최근에는 블랙박스가 각종 강력 사건을 해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. 또 각종 영상들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네티즌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기도 한다.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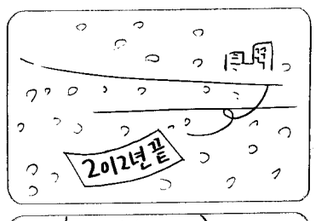
⑧**복고**=영화 '건축학 개론'과 드라마 '응답하라 1997'은 시청자들에게 1990년대의 향수를 자극했다. 특히 응답하라 1997은 90년대의 음악을 바탕으로 문화계 전반에 복고 열풍을 몰고왔다.

⑨**애니팡**=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이 날로 성장하는 가운데 특히 선데이토즈가 제작한 '애니팡'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'국민게임'의 반열에 올랐다.

⑩**불금황토**='불타는 금요일 황금 같은 토요일'의 앞글자를 딴 '불금황토'는 주 5일 근무제의 정착과 더불어 생겨난 신조어다. 10대부터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음날이 휴일인 금·토요일에 일주일 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놀이문화가 생겼다.

/김경인기자 kki@kwangju.co.kr

나운찬 〈8721〉 김종두



진짜 호기심에 우체국 금고 털었나

여수경찰서 김 경사 범행동기 아리송

여수 삼일우체국 금고털이 공범인 여수경찰서 김모(44) 경사가 27일 구속된 가운데 김 경사의 범행동기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. 경찰이 절도 행각을 벌일 정도로 급박한 경제적인 사정이 없는데다 김 경사가 평소 씀씀이가 컸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.

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이날 "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"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. 김 경사는 지난 9일과 지난 2005년 공범인 박모(44)씨와 함께 각각 여수시 삼일우체국과 미평동 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5213만원, 1400여만원 등을 훔친 혐의다. 김 경사가 경찰에서 단순히 '호기심'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일선 경찰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졌다. 파출소장은 물론 여수서장 등 간부급 경찰이 줄줄이 대기발령 조치되고 경찰 이미지를 먹칠한 당사자의 동기치고는 너무 어이없다는 것이다.

한 동료경찰은 "돈이 목적이 아니라면 김 경사가 동료 경찰이 자신을 붙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"고 혀를 찼다.

경찰 추가조사에서 김 경사와 박씨는 검거 직전 만나 '자수'를 상의하는 등 사건 전후 수시로 협의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. 경찰 관계자는 "박씨가 지난 19일 김 경사를 만나서 자수의사를 밝혔고, 김 경사가 자수하면 뒤는 자신이 봐주겠다고 답한 것으로 안다"고 말했다. 자신은 검거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박씨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힌 셈이다. /양세열기자 hot@

광주 찾은 日 청소년들 광주를 찾은 일본 나고야 청소년들이 27일 광주시 서구 백일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둘러보고 있다. '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'의 초청으로 광주를 찾은 이들은 29일까지 광주에 머무르며 한일 간 역사문제와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. /최현배기자 choi@kwangju.co.kr

품질보증서 위조 원전 부품공급 둘 구속

광주지검 특수부(부장검사 김석우)는 27일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원전에 부품을 공급한 혐의(사문서 위조 등)로 박모(47)씨 등 납품회사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.

검찰은 또 다른 납품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, 28일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.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오문철 전 보해저축銀 대표 징역 7년 확정

대법원 1부(주심 양창수 대법관)는 27일 불법·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문철(59)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에게 징역 7년,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또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(65) 보해양조 전 회장에게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.

오 전 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 12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(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)로 기소됐다. 오 전 대표의 공소사실에는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, 대출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. 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해 보해양조에 37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(특경가법상 배임)로 기소됐다.

검찰은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직원, 브로커, 대출자 등 총 38명을 기소했다.

1심은 오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, 임 전 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오 전 대표에게 부과한 추징금 액수만 2억5000만원 감액했다.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여수경찰서장에 정재윤 총경

경찰청은 27일 부하 직원의 절도 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김재병 현 여수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신임 서장에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정재윤(51) 총경을 임명했다.

고향이 목포로 목포고와 목포대를 졸업한 정 서장은 1990년 간부후보 38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감찰담당관실 조사1담당, 서울청 경비1과 경비계장,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을 거쳤다. 전남지방경찰청은 또 여수경찰서 안강섭(경정) 생활안전과장과 김충식(경감) 삼일파출소장을 대기발령했다.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항소심서 징역 8년 선고

광주고법, 1심 12년서 감형

영화 '도가니'에 등장하는 성폭행 장면의 실제 인물인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.

광주고법 형사 1부(부장판사 이창한)는 27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(64)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과 같이 10년간 신상정보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.

재판부는 "김씨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행정실장으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성폭행하고 목격 사실을 입막음하기 위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"며 "변태·가학적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고통을 겪는데도 부인하는 점,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"고 판시했다.

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서는 "김씨가 2005년 이후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비슷한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재판과 복역을 경험한 점 등은 감안했다"고 덧붙였다.

재판부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청각장애인 성폭행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과장됐지만 주요 부분이 일치하고 제3자 개입이나 학습으로 변형·왜곡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.

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"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판결"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, 천막농성을 마감했다. 김씨는 2005년 4월께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A(당시 18세)씨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.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주인에 담배 심부름 시킨뒤 현금 '슬쩍'

쌍나팔

○…주인 혼자 일하는 소규모 식당과 카페에서 주인에게 심부름을 시킨 뒤,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.

○…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김모(51)씨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35분 광주시 서구 화정동 A(여·58)씨의 카페에서 현금 8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지역 식당과 술집, 주유소 등에서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.

○…경찰 관계자는 "김씨가 손님이 없고 영세한 업소들을 찾아다니며 주인에게 담배나 과일 심부름을 시킨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"고 설명.

/김경인기자 kki@kwangju.co.kr